

## 가상공간에서의 권력형성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이오현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본 논문은 가상공간에서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되는지 그리고 권력의 형성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보고 또 보고> 시청자 게시판 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 게시판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담론들을 제기하고 끊임없이 상호 경쟁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특정의 담론을 생산하는 참여자들이 양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면서 타 담론들을 배제하려 하고 이에 대해 타 담론들을 생산하는 참여자들은 저항도 했지만 지배적 담론의 계속되는 공격 속에 게시판에 참여를 꺼리는 경향을 보였다. 게시판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러한 경향들이 더욱 강화되었고 지배적인 담론을 포함한 편지들이 게시판에서 점점 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보고 또 보고> 시청자 게시판에서 지배적인 담론은 유교적 기부장적 담론이었는데, 이는 물리적 사회공간에서의 참여자들의 경험과 지배문화, 드라마의 저자성, 그리고 게시판의 팬덤적 성격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가상공간, 전자게시판, 인터넷 수용자, 권력, 텔레비전 드라마

---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때 인터넷을 통해 형성되는 가상공간에 대한 인식은 소위 민주적 공간론에 의해 강력하게 규정되었던 적이 있었다. 즉 가상공간은 물리적 사회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물리적 사회공간에서의 위계질서나 차별이 존

---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loh@dongguk.edu

재하지 않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공간이라는 것이다. 비록 민주적 공간론이 가상공간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나름의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이전의 독점적 영향력은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가상공간에 대한 지배적 인식들은 소위 헤게모니적 공간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상공간은 순수한 해방이나 완전한 지배의 공간이기보다는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권력투쟁이 끊임없이 진행되며 지배와 차별 그리고 저항이 역동적으로 서로 경합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 헤게모니적 공간론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기술의 기원과 발전이 기존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소들에서 분리되어질 수 없기에 가상공간이 물리적 사회공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가상공간도 물리적 사회공간에서의 지배문화, 특히 중산계급/남성(백인) 중심적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제 가상공간이 순수한 민주적 공간이기보다는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권력투쟁의 공간이며 물리적 사회공간에서의 지배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은 가상공간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이 되었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 어떻게 권력투쟁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헤게모니가 형성되고 작동되는지, 또한 가상공간에서 형성된 헤게모니가 물리적 사회공간에서의 지배문화와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 심층적인 경험적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비록 헤게모니적 공간론자들이 민주적 공간론이 증거보다는 추측에 심각하게 기반하고 있고 설명보다는 예언들로 대부분 구성되어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지만(Gurak, 1995; Hakken, 1999; Loader, 1997), 헤게모니적 공간론 또한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상공간에서 사람들의 행위방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상공간에서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 그리고 권력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가상공간의 사회적 사용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헤게모니적 공간론의 타

당성을 성찰해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배경

### 1) 가상공간에 대한 헤게모니적 공간론의 이론적 근거

헤게모니적 공간론의 이론적 자원들은 민주적 공간론의 주요 가정들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적 공간론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 가정들-접근의 보편성, 가상성/익명성, 무정부적/탈중심적 건축 구조-에 대한 헤게모니적 공간론의 비판들을 살펴봄으로써 헤게모니적 공간론의 이론적 근거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민주적 공간론에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보편적이다. 즉 인터넷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의 보편성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공간이 다양성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Berman & Weitzner, 1997).

그러나 헤게모니적 공간론에서 인터넷의 접근은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제한되어지기 때문에 불평등하다(홍성욱, 1999; Wolf, 1998; Luke, 1998). 먼저 인터넷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계급적인 불평등은 심각한데 이는 경제적 자원과 지식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기인한다. 인터넷의 접근은 전화비 또는 가입비, 보수유지비, 컴퓨터 업그레이드비 등 상당한 (적어도 중산계층의) 경제적 능력이 요구되고 지식적, 기술적 능력도 어느 정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의 경우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시간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에너지 면에서나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고학력의 중산계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온라인 통계가 통상 평균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무직 전문가/고등 교

육박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로서 참여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인터넷에 대한 접근의 계급적 격차의 문제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음(강진숙, 2002)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질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는 인종 간 그리고 국가 간에도 심각하게 이루어져 있기에 인터넷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인종적 그리고 국가적 불평등 또한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인터넷에 대한 접근의 성적 불평등은 해소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 대한 접근의 성적 불평등의 해소가 가상공간에서 남성중심적/성차별의 문화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에 성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리적 사회공간의 가부장적 문화를 배경으로 인터넷의 이용시간과 이용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등에 있어서 성적 차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가상공간에서 실제적인 참여도와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은 여전히 남성 지배적이다(김유정 & 조수선, 2000; 한혜경 & 박혜진, 2000). 결국 이러한 인터넷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은 가상공간이 물리적 사회공간에서의 지배집단인 중산계급/남성(백인)의 문화에 의해 지배되어지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주적 공간론에서 가상공간은 물리적 사회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삶은 물리적 사회공간에서 삶이 갖는 한계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다. 특히 가상공간의 가상성/익명성은 참여자들이 물리적 공간에서 고정된 정체성에서 해방되어 정체성을 자유로이 창조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회적 정체성(계급, 성, 나이, 인종, 국가, 신체적 결함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들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것이다(박기순, 1997; 백옥인, 1996; Heim, 1993; Turkle, 1995).

그러나 헤게모니적 공간론에서 가상공간은 물리적 세계로부터 격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는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물리적 사회공간이 확장된 것이다(Denzin, 1999; Jones, 1999; Resnick, 1998). 왜냐하면 가상공간에서의 사람들의 활동이 물리적 사회공간에서의 삶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기에 가상공간이 기존 물리적 사회공간의 지배문화와 질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헤게모니적 공간론자들은 가상공

간의 참여자들이 물리적 사회공간에서의 정체성을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가상공간에서도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단서들이 다양한 방식-예를 들면 아이디, 전자메일 주소, 인용체계, 인터넷 상형문자, 글쓰기 유형, 상호작용 유형, 이전 글들의 역사 등-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구자순, 1999; 성시정, 1999; Herring, 1994; Matheson, 1992; O'Brien, 1999). 또한 가상공간에서 비록 익명성과 가명들이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단서들을 경감시킬 경우에도 사회적 위계와 차별은 계속되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징후를 통해 사회적 편견을 더 심각하게 반영하는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맨과 스튜어트(Mann & Stewart, 2000)는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검토한 후 “인터넷에서의 상호작용은 성이나 다른 사회적 위치의 차이에 기인한 편견들을 약화시키기보다는 강화시키는 듯 하다”(168)고 결론짓는다.

셋째, 민주적 공간론에서 인터넷은 어떠한 지배적 조직 또는 중심적 근원도 없이 형성되어진 무정부적이고 탈중심적인 건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무정부적, 반위계적, 반검열적, 분권적이다(백옥인, 1996; Griscom, 연도미상; Hiltz & Turoff, 1993). 따라서 인터넷의 무정부적이고 탈중심적 건축구조는 가상공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공간이 되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헤게모니적 공간론에서 가상공간은 물리적 사회공간과 마찬가지로 권력관계가 존재하고 권력투쟁이 일어나며 위계와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다(Reid, 1999; Willson, 1997; Fernback, 1999). 가상공간에서도 행동을 위한 규범이 형성되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한 또는 처벌이 가해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가상공간에 대한 접근도 물리적 사회공간에 대한 접근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문화적 실천과 신념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상공간에서 규범을 만들고 처벌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권력이 참여자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져 있기보다는 특정인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현상은 가상공간에서도 불평등한 권력분배와 그에 따른 위계와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헤게모니적 공간론자들은 가상공간에서의 위계와 차별이

물리적 사회공간에서의 (계급, 성, 인종 등에 따른) 위계와 차별과 동일한 형태로(Resnick, 1998; Kendall, 1999) 또는 다른 형태지만 밀접한 관계 하에, 예를 들면, 가상공간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참여자와 경험이 없는 신생참여자가(김종수 & 김순주, 1998; Toulouse, 1998), 중사용자와 경사용자(Baym, 1995), 전문가와 비전문가(Luke, 1998) 사이에는 각각 전자가 지배적 권력을 행사하며 후자를 조롱, 처벌, 또는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전자들은 압도적으로 중산계급/남자/(백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의 계급적/성적/(인종적) 불평등이 악화 또는 제거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가상공간의 기존 중산계급/남성/(백인) 중심적 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다.

## 2) 가상공간에 대한 기존 경험적 연구들의 한계

인터넷을 통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 연구라고 총칭된다. 초기의 CMC 연구들은 가상공간에서의 사람들의 행위를 탐구하였다기보다는 대인커뮤니케이션 또는 조직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CMC의 효과에 대한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험실적 또는 자연적 접근방식을 통하여 인간관계와 관련한 CMC의 영향(Kiesler, Siegel, & McGuire, 1984; Dubrosky, Kiesler, & Sethna, 1991)이나 조직적 일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CMC의 영향(Rice, 1984; Sproull & Kiesler, 1986)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CMC가 익명성 등으로 인하여 커뮤니케이션의 평등화, 의사결정과정의 민주화, 권력의 분산 등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인터넷에 대한 낙관적 담론(민주적 공간론)을 직, 간접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컴퓨터 사용의 사회적 맥락과 온라인 사회세계의 복잡성과 풍부성을 간과하고 기술결정론적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았다(Gurak, 1996; Paccagnella, 1997).

CMC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흐름은 개인적 또는 조직적 일에 관련된 실험실적 연구에서 좀더 사회적 경향성이 짙은 민속지학적 연구들로 변해왔

다. CMC에 대한 민속지학적 연구들은 다양한 가상공간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가상공간 내에서 형성되는 문화적 특징들을 탐구하였다(Baym, 1995; McLaughlin, Osborne & Smith, 1995; Bileby & Harrington, 1994). 파카넬라(Paccagnella, 1997)는 이러한 연구들이 가상공간의 구체적 현상들에 대한 많은 상세한 기술들을 제공하고 육체적 접촉이 부재한 가상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적이고 의미있는 개인관계들과 사회규범들을 형성하는지를 잘 설명해왔다고 평가한다. 이 연구들은 가상공간에서의 문화적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가상공간에서 형성되는 그러한 문화적 현상들이 발생하고 유지되는데 있어서 작동하는 권력의 문제 그리고 그 결과로써의 차별의 문제는 간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이 연구들이 민주적 공간론의 가정들을 연구의 전제로 삼아 연구를 수행하고 다시 민주적 공간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들을 생산해내는 또 다른 문제적 경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에서의 가상공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가상공간에 대한 일반적 관심의 수준이나 이론적 논의에 비하면 그렇게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도 가상공간에서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 특히 가상공간에서의 권력과 차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분석을 담고있지 못하다. 기존의 연구들의 경우, 대인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 비교한 CMC의 특성을 탐구하거나(김관규, 2002; 김관규 & 임현규, 2002), 민주적 공간론의 가정을 전제한 상태에서 특정 가상공간의 문화적 특성(박기순, 1997; 김종길 & 김순주, 1998)을 밝히거나, 가상공간에서의 성차별을 커뮤니케이션 패턴의 차이(성시정, 1999; 구자순, 1999; 한혜경 & 박혜진, 2000) 또는 사이버성폭력(김명혜 & 이나영, 2000)을 통해 제시하는 데 머물고 있다. 비록 몇몇 연구가 가상공간에서의 문화나 권력의 문제를 다루기는 했으나(윤영철, 1998; 이만제, 1997; 한희정, 2002; 주창윤, 2002), 이들도 가상공간에서 권력이나 차별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3. 연구방법

#### 1) 접근방법

관찰(observation)은 민속지학자에게 주요 조사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찰적 접근방법은 완전관찰자, 참여자로서의 관찰자, 관찰자로서의 참여자, 그리고 완전참여자와 같이 연구자의 역할에 따른 연속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Glesne & Peskin, 1992). 가상공간을 연구하는 민속지학자들도 관찰을 조사자료를 얻는 주요 방법들 중의 하나로 사용하며 다양한 관찰적 접근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연구자들은 특정 가상공간에 대해 완전관찰자의 역할을 하던가(주창윤, 2002; Bielby & Harrington, 1995), 참여자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던가(이만재, 1997; Baym, 1995), 또는 특정의 가상공간을 직접 만들어 참여자들을 불러모으는(구자순, 1999; 김유경, 2001) 등의 관찰적 접근방식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완전관찰자의 접근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접근방식은 연구장소를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가상공간에서 문화와 권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자들의 행위방식을 조사하는 데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파카넬라(Paccagnella, 1997)도 가상공간에 대한 완전관찰자의 접근방식이 조사자의 현존으로 야기되는 자료와 행위의 왜곡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한다.

####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1998년 3월 3일부터 1999년 4월 2일까지 방영되었던 문화방송의 저녁 일일연속극 <보고 또 보고> 웹사이트의 시청자게시판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를 시작할 당시, <보고 또 보고>는 가장 인기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으며 이를 반영하듯 이 드라마의 웹사이트 시청자게시판은 다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청자게시판에 비해 현격하게 많은 글들이 게재되어 있었고 참여자들간의 활발한 논쟁이 진행되던 가상공간이었다.



본 연구가 분석자료로 사용한 것은 <보고 또 보고>가 종영된 후 1개월이 지난 1999년 5월 초 시청자게시판에 올려져 있던 글들로 총 10053통의 시청자 편지였다. 자료분석은 6단계의 전형적인 질적 분석절차를 따랐다. 1) 자료 정리하기 및 친숙해지기, 2) 유형(pattern), 주제(theme), 범주(category) 만들기, 3) 자료 코딩하기, 4) 자료에 대한 초기의 이해 및 해석 점검하기 5) 대안적 해석 및 설명 찾기 6) 보고서 작성하기(Marshall & Rossman, 1999: 152-64). 총 4회에 반복하여 편지들을 숙독하였다. 자료를 숙독하는 과정 속에서, 분석단위를 전체 편지로 그리고 분석기준을 담론으로 하여 자료를 분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편지에서 보여지는 표면적인 입장이나 태도를 분석기준으로 삼았을 때보다 도출되는 범주의 수를 훨씬 간결화하고 범주들 사이의 차이를 더 심층화함으로써 게시판에서 나타나는 협조, 경쟁 또는 갈등의 양상을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담론을 기준으로 한 범주들의 도출과 도출된 범주들에 따른 각 편지들의 분류에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는 <보고 또 보고>의 두 여주인공과 관련한 게시판 참여자의 행위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결과를 제시하는데, 참여자들의 행위들은 주로 네 가지 담론,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 ‘금주 지지/은주 비판의 남성중심적 담론’, ‘은주 또는 금주 지지의 저항적 담론’, ‘은주 또는 금주에 대한 대항적 담론’-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든 편지들은 먼저 이 네 가지 범주들에 따라 분류되었다. 그 다음으로, 분류된 네 가지 담론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를 통해 결국 ‘은주파의 금주파 공격’, ‘은주파의 저항/대항담론 공격’, ‘금주파의 은주파 공격’, ‘저항/대항 담론의 은주파 공격’ 등의 범주들이 도출되어졌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담론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방식을 발생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결국 ‘팬덤적 공간으로서의 게시판’, ‘물리적 사회공간에서의 경험과 지배적 담론’, ‘드라마의 저자성’ 등의 범주들이 도출되었다.<sup>1)</sup> 그러나 도출된 분석범주들은 단계별로 완전히

1) 각 범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 논문의 <분석결과> 부분을 보시오.

배타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전체 분석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도출, 제거, 세분, 통합 등의 작업을 통해 결정되었다.

#### 4. 연구결과

<보고 또 보고> 시청자게시판의 참여자들은 게시판에서 주로 드라마 또는 드라마가 내포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자신들의 느낌, 생각,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드라마의 주요 등장인물들과 이들간의 갈등들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하였다. 참여자들은 또한 다른 참여자들의 글에 대한 생각과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시각과 유사한 시각을 담고 있는 글에 대해서는 동조나 지지를 표하거나 자신들의 시각과 상이한 시각을 담고 있는 글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공격을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게시판은 참여자들이 주요 등장인물들과 이들간의 갈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들과 같은 의견을 가진 참여자들을 동조, 지지하고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참여자들을 비판,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의견을 게시판에서 지배적인 것으로 확립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참여자들이 게시판을 드라마에 대한 담론투쟁의 공간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질적으로 참여자들은 주요 등장인물들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다른 참여자들의 해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담론들을 생산하였고 이 담론들은 게시판에서 경쟁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표출된 다양한 담론들은 평등하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 듯 했다. 게시판에서 양적으로 다수를 차지한 담론은 게시판을 통제하(려 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담론들은 다수인 담론의 공격에 저항하면서 존재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배적 담론의 게시판에 대한 통제력은 더욱더 커져갔다. 본 논문에서는 드라마의 두 여주인공인 은주와 금주에 대해 게시판 참여자들이 생산한 담론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자매이지만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드라마 내내 경쟁적

이고 갈등적으로 그려졌던 은주와 금주는 참여자들의 가장 적극적인 해석과 논쟁의 대상이었다. 총 10,054개의 게시판 편지 중에서 4,639개가 은주와 금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담고 있었다. 이것은 게시판에서 은주와 금주를 둘러싸고 가장 강렬한 담론투쟁이 진행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 담론들의 등장과 경쟁

드라마 내내 갈등관계로 그려졌던 은주와 금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한 등장인물을 지지하고 다른 등장인물을 비판하였으며 등장인물들에 대해 자신과는 다른 선호경향을 보이는 참여자들과 논쟁을 벌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은주 지지집단과 금주 지지집단으로 나뉘어져 의견을 제시하고 집단 간 상호 비판과 공격을 행하였다. 또한 참여자들 중에는 은주나 금주에 몰입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은주 또는 금주와 관련하여 드라마 자체를 비판, 공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게시판에서 유교적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지배문화와 관련하여 주로 네 가지의 담론을 제기하고 상호 경쟁하는 양상을 보였다.

#### (1)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

은주를 지지하고/하거나 금주를 비판하는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유교적 가부장체제가 여성에게 부여한 미덕들 — 예를 들면 가족 특히 시댁에 대한 복종, 인내, 희생, 가사 일への 능숙함 등 — 을 자신들의 주장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은주가 유교적 가부장체제가 여성에게 부여한 미덕들을 충족시키는 또는 충족시키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찬양하였다. 반면에 금주가 그런 미덕들에 대해 나태한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공격하였다. 결국 은주를 지지하고/하거나 금주를 비판하는 참여자들 대부분은 게시판에서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을 제기, 유포하면서 다른 담론들을 제시하는 참여자들과 경쟁하였다.

…… 여성평등사상 어찌고 저찌고 하는 세상에 밖에서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사람으로서 또 여자로서 기본적인 것은 해내면서 살아야하지 않을까요? (금주는) 나이가 몇인데 상도 안 닦고 수저를 놓질 않나 행주를 한번 빨지도 않고 상을 닦으려고 하질 않나? 자기 얼굴만 씻을 줄 알았지 여자로서의 식구들을 위한 위생관념도 없고 정말 너무나 여자로서는 파이입니다. …… 저는 하여튼 은주가 맘에 듭니다. …… 앓을 자리 누울 자리 다 구별하고 자기 할 일 다하고 남 배려할 줄 알고 남자에게 내조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절약도 하고 시부모님께도 잘하고 싫은 소리 듣더라도 혼자서 잘 해결하고 남에게 탓도 돌리지 않고 원망도 않고 참 맘에 드는 아가씨 상입니다……(3257).

은주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더군다나 시집가기 전에 시집 식구들 식성까지 알아가지고 요리도 배우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여성이 아주 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장생활하면서 며느리 역할은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만며느리랍니다. …… 그런데 금주는 친정에서도 대접을 받고 시집와서도 그렇고 은주 같이 똑똑하고 일 잘해도 시집살이라니……(6365).

## (2) 금주 지지/은주 비판의 남성중심적 담론

금주를 지지하고/하거나 은주를 비판하는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착함’과 ‘예쁨’을 여성의 최고의 가치로 그리고 여성의 궁극적인 행복은 훌륭한 남자를 만나 그의 보호 속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금주의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행위방식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반면에 은주의 적극적, 독립적, 당당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비판하고 공격하였다. 결국 금주를 지지하고/하거나 은주를 비판하는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게시판에서 수동성과 종속성을 강조하는 여성성에 대한 남성중심적 담론을 제기, 유포하고 다른 담론들을 생산하는 다른 참여자들과 경쟁하였다.

금주는 진짜 이쁘다. 약간 어리숙해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아껴주고 싶어지고 사랑해주고 싶은 여자 금주! 그 순수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영악하고 악삭빠

른 은주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언제 어디서나 풋풋함과 아름다움을 주는 그녀의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금주 파이팅!(2826)

금주언니는 아주 순수하구…… 기본적으로 인간성이 은주보다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게을르다구 싫어하는데 그건 이중적이고 교활한 성격보다는 훨씬 좋다구봐요. 그리고 내가 지여사래두 순수하구 이쁘구 여자다운 금주가 훨씬 이쁘고 맘에 들 것 같아요……(3411).

### (3) 은주 또는 금주 지지의 저항적 담론

은주 또는 금주를 지지하는 참여자들 중에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수준에서 은주의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방식과 행위방식을 지지하거나 금주가 유교적 가부장적 가치체계가 규정한 여성의 미덕들에 나태하고 일탈하는 것을 옹호하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은주 또는 금주의 모습에서 여성성에 대한 유교적 가부장적 또는 남성중심적 가치체계에 저항하는 요소를 찾아내어 즐기는 듯 했다. 결국 이 참여자들은 게시판에서 저항적 담론을 생산, 유포하면서 다른 담론을 생산하는 참여자들과 경쟁하였다.

이 드라마에서 여자가 적극적인 성격으로 나와 힘이 납니다. 보통 여자는 연약하게 착하게 매체에서 그려져서 무척 속이 상했는데 극중 은주를 보면 마음이 뿌듯하더군요. 자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도 강하게 나타내어줘서 그 점에서 괜찮은 드라마라 생각해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2756).

현재 난 결혼 3년 된 주부이다. 남편은 차남으로 분가해서 살고 있다. 분가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 난 금주에 가깝다. 눈치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맘대로 다.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까? 밥, 청소, 설거지, 빨래 등등……. 남편이 직장 다니는 것처럼 난 공부하러 도서관에 다니기 때문에 집안일은 반반씩한다.. 가만히 내 생활을 떠올려보니 금주 같은 면이 더 많다. 친구들은 나를 부러워한다. 나의 편안함을……(7812).

#### (4) 은주 또는 금주에 대한 대항적 담론

<보고 또 보고>가 은주와 금주를 통해 가부장적 가치체계를 반영한다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드라마가 은주와 금주를 통해 수퍼우먼의 이미지, 남성중심적 또는 시대중심적 사고방식, 여성들의 결혼절대주의, 성역할의 이분법적인 구분, 또는 사회노동력으로 여성능력의 폄하, 결혼한 여성의 임신제일주의와 남아선호사상 등을 조장하고 강화시킨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들이 드라마가 제시하는 유교적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시각을 강화하는 참여자들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 이들 참여자들은 등장인물들에 몰입하여 특정인물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보고 또 보고>의 전체 의미구조 또는 한국의 지배문화라는 수준에서 드라마를 문제화하는 대항적 담론을 생산, 유포하면서 다른 담론을 생산하는 참여자들과 경쟁하였다.

은주는 이 시대 한국 최고의 신부감이다. 전에는 살림 잘하고 시어른 잘 모시면 일등 신부감이었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거기에 덧붙여 돈까지 잘 벌어야 최고가 될 수 있다. 남성의 눈으로 보았을 때 도대체 은주를 나무랄 때가 어디 있겠는가?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데다 무거운 짐을 지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절대로 남편이나 시댁에 푸는 법이 없다. 자기 가족이나 같은 여자에게 풀지. 여성들이여! 정말 은주처럼 살고 싶은가? 사실 나는 지금 은주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 …… 하지만 은주처럼 살고 싶지도 않고 그것이 이상적으로 그려지는데 대해서는 정말 무지무지 분노한다. 대체 여자들을 어디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 …… 여성들이여! 제발 속지마라!!!(4949)

이건 금주를 옹호하거나 은주를 손가락질 하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임신 먼저 시키라구 난리십니다. 은주편은 은주를 금주편은 금주를…… 참 보기 안좋은 것 같네요. ……여자는 임신했을 때 제 값을 한다…… 뭐 그런 생각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임신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양…… 여자를 무슨 임신하는 기계 내지는 애 만드는 뭉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 드라마 그리고 그

작가…… 진짜 싫습니다(6309).

## 2) 지배적 담론의 형성과 권력행사

게시판의 후반부로 갈수록, 한편으로는 은주와 금주를 둘러싼 참여자들 사이의 논쟁이 격렬해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게시판에서 경쟁하던 담론들 사이에 양적인 차이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힘의 차이가 점점 더 뚜렷이 나타났다.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을 담은 편지들은 점점 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다른 담론들을 담은 편지들을 공격하고 게시판에서 배제시키려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졌다.

먼저 양적인 면에서, 드라마의 내용과 방영기간 등을 고려해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누어볼 때, 후반기로 갈수록 게시판에 게재된 편지의 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을 담은 편지들의 경우에 전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후반기에 이르러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후반기로 갈수록 게시판에서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을 담은 편지들의 비중이 더욱더 높아졌고 후반기에는 압도적인 비중(77.1%)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금주 지지/은주 비판의 남성중심적 담론을 포함한 편지들은 중반기까지는 편지 수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후반기에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은주 또는 금주에 대한 대항적 담론을 담은 편지들 또한 중반기까지 증가를 보이다가 후반기에 감소하였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감소하였다. 은주 또는 금주 지지의 저항적 담론을 포함한 편지들은 전반기부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였으며 후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감소하였다. 즉 후반기로 갈수록 게시판에서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을 담은 편지와 다른 담론을 포함한 편지 사이의 양적인 차이가 증가하였다(<표 1> 참조). 이것은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일단 양적인 면에서 지배적 담론으로 점점 더 강력하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게시판에서 담론들 사이의 양적인 차이는 게시판 내에서 담론들 사이의

<표 1> 시기별 각 담론을 포함한 편지의 수

	전반기(3월-7월)	중반기(8월-12월)	후반기(1월-4월)	계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	172(30.3%)	674(38.7%)	1797(77.1%)	2593(55.9%)
금주 지지/은주 비판의 남성중심적 담론	136(24.0%)	547(31.4%)	244(10.5%)	977(21.1%)
은주 또는 금주 지지의저항적 담론	29( 5.1%)	24( 1.3%)	11( 0.5%)	64( 1.4%)
은주 또는 금주에 대한 대항적 담론	74(13.1%)	102( 5.7%)	76( 3.6%)	252( 5.4%)
기타	156(27.5%)	393(22.6%)	204( 8.7%)	753(16.2%)
계	567(100%)	1740(100%)	2332(100%)	4639(100%)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나타나는 기반이 되는 듯 했다. 먼저 게시판 후반부로 갈수록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과 다른 담론들 사이의 비판과 공격은 점점 더 증가하였으며 비판과 공격의 강도도 점점 더 심해졌다. 특히 양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을 담은 편지들이 다른 담론을 담은 편지들을 공격하는 현상이 점점 더 뚜렷해졌다(<표 2> 참조).

<표 2> 시기별 타 담론에 대한 공격빈도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계
은주파의 금주파 공격	44	193	487	724
은주파의 저항/대항담론 공격	21	62	223	306
금주파의 은주파 공격	37	202	61	300
저항/대항 담론의 은주파 공격	19	23	16	58
계	121	480	787	1388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의 주 공격대상은 양적으로 가장 경쟁적인 위치에 있던 금주 지지/은주 비판의 남성중심적 담론이었다.



양적인 차이가 확연하지 않던 초반기에서 중반기 동안에는 양자의 상대담론에 대한 공격은 거의 대등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후반기로 갈수록 양적인 차이가 점점 더 현격하게 벌어지면서 전자의 후자에 대한 공격은 더 강화된 반면에 후자의 전자에 대한 공격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후반기로 갈수록 전자의 후자에 대한 공격은 더 빈번히 이루어졌으며 후자를 게시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더 명백히 보였다.

나도 처음부터 <보고 또 보고>를 보았다. 나는 은주가 결혼 전에 엄마한테 말대답하고 잘난척하고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어른들 말씀을 무시하는 은주가 많이 미워서 <보고 또 보고>를 한동안 안 보았다. 그런데 어느날 TV를 켜더니 결혼하고 시집살이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그녀가 깨달을게 많다고 생각했다(8666).

[8666에 대한 답장들]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있어!! 정말 보면 볼수록 이 글이 질 열받게 하네요. 은주하고 기정이고 사랑해서 결혼했고 천생연분이라는데 말이죠. 그러는 금주년과 기풍이는 잘된 결혼 같습니까. 앞으로 의견을 내려면 똑바로 내세요. 그리고 이 게시판에 있는 글 다 읽어보세요 맥 같은 의견하나라도 있는지(8669).

제 정신인지. 다시 이런 글 올리려면 보질 말든가 하세요, 열받아(8673).

너 뭣 하는 사람이냐? 너 말이야! 도대체 개인 감정으로 은주를 욕하지마. 어 기분나빠 죽겠어. 꺼져버려(8674).

말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보고 말하세요. 드라마를 처음부터 쭉 보셨나요? 은주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요전번에 끝난 만화 신데렐라 보셨나요? 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행복해져야 한다구요. 이젠 제대로 보십시오(8681).

도대체 뉘집 자식인지 한심하군. 너, <보고 또 보고> 침부터 본 거 맞아? 은주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살았는지 못봤냐?? …… 그리고 보니 너두 금주과보구

나?? 맨날 빈둥대고 동생부러먹기나 하고 남 생각할 줄 모르고, 할줄 아는거 없구, 싸가지 없구…… 참!! 이상한 3류 소설 정도는 쓸 줄 아는가 보지?? 이런 글 띄우지마 안그래도 드라마 보고나면 열받아 죽겠는데 너까지 화를 돋구냐??(8682).

너 혹시 윤혜영 친구 아냐?? 아님 작가친구?? 쫓쫓 정말 할 말이 없군……. 그렇게 은주가 싫고 금주가 이쁘면 금주 같은 누라 만나서 고생 좀 팍팍해봐라 (8800).

드라마를 필로 보는 거야? 이 글을 보고 얼마나 속이 끌던지. 욕 나올려다 말았다. 너 다시 이런 글 올렸단 인생 없을 꺼야(8845).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을 생산하는 참여자들은 다른 담론을 생산하는 참여자들을 게시판에서 내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공격을 행하고 있는 듯했다.

이멜박스가 터지네요. 제가 금주편 든 게 그렇게 큰일입니까? 오타난 거까지 지적 받구 허허 참 나. 많은 의견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가네요. 왜들 그렇게 난리지. “너 튀어볼라구 그러냐?” “사상이 의심스럽다” “세상에 너 같은 인간 있다는게 신기하다”는 등……. 심지어는 “도와드릴테니 같이 고쳐보자?” “3차대전을 일으켰다?” 은주가 좋은 사람 있는가 하면 금주 좋은 사람들두 있는 법입니다. 내가 금주 편드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난리들입니까? ……(8753).

어제 여기다 금주 좋은 얘기 좀 썼더니 정말 별의별 소리를 생전 처음으로 다 들어봤어요. 그냥 내 의견을 말한 거뿐인데 그렇게 까지 해야 하나……(8762).

이러한 게시판에서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지배적 담론의 배타적인 경향에 대해 몇몇 참여자들은 저항을 하였다. 이들은 <보고 또 보고>의 게시판이 어떤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임을 강조한다.

…… 몇몇 은주 광신도들은 여전히 내세울 만한 논리 근거는 하나도 없이

‘보또보’에 비판적인 글마다 토를 붙이면서 보기 싫으면 보지 말고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그냥 두라고 짜증을 부리는데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은 가족이 둘러앉아 보는 드라마가 교묘하게 주인공을 통해 직업에 대한 비뚤어진 가치관과 남녀에 대한 교묘한 성차별의식들을…… 여과 없이 마구 풀어내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느 분이 이 게시판 지겹다고 안보면 되지 왜 난리냐고 매우 막된 표현을 쓰시던데 그 분이야말로 이 게시판 안보면 되지 왜 열내는지 모르겠다. 모든 사람들은 비판하고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1738).

게시판은 자유로이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이 글을 실는 것도 그 사람대로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뿐인데 말을 하지 말라니…… 참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비판적인 사람들을 그렇게 탓하며 심지어 KBS나 SBS사람들이 아니냐며 왜 음해까지 하느냐는 말을 올린 글 정말 그렇게 까지 생각하는 것이 내 눈에는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게 보인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가? 게시판은 자유로운 곳이어야 합니다(5537).

그러나 이러한 글들은 매우 소수(총 15개)였고 다시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지배적 담론을 담은 편지들의 공격을 받았다. 비록 본 연구의 자료로는 게시판의 지배적 담론이 다른 담론들이 게시판에서 표현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았는지는 여부는 밝혀낼 수 없지만 그 징후는 엿볼 수 있었다. 게시판의 몇몇 편지들은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지배적 담론의 공격이 다른 소수적 담론들을 표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러한 편지들은 게시판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 빈번히 나타났다.

…… 저도 금주편인데 감히(?) 글을 올릴 수 없었는데 7457글과 답장을 보니 안올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7524).

재미있군요. 은주를 칭찬하시는 분들은 본명을 쓰시고 금주를 칭찬하시는 분은 닉네임을 쓰시던가 성을 쓰시지 않는군요. 왜 그럴까요?……(9029).

은주가 요즘 너무 안 좋은 인상을 남겨주는군요. ……에고 욱먹을까??? 어찌  
지? 내일 지워야지~(10487).

요약하자면 게시판에 등장한 은주와 금주와 관련하여 담론들은 지배적  
담론이 되기 위한 상호투쟁을 벌였으며 결국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이 다른 담론들을 양적인 면에서 압도하면서 다른 담론들을  
적극적으로 비판, 공격하고 게시판으로부터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은  
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의 이러한 지배력의 행사에 대해  
소수적 담론의 생산자들은 저항하기도 하였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표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다시 게시판에서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이 더욱 표출되어 지배적 담론으로 더욱더 확  
고히 자리잡도록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은주 지지/  
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은 게시판에 대한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3)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의 권력 획득의 주요 요인들

#### (1) 물리적 사회공간에서의 경험과 지배적 담론

게시판에서의 참여자들의 행위는 물리적 세계에서의 그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듯 했다. 참여자들이 게시판에서 생산하는 담론  
은 물리적 세계에서의 그들의 개인적, 가족적, 직업적, 또는 사회적 위치와  
관계들에 따른 경험에 기반하고 있는 듯 했다.

나도 맘머느리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 같다. 아주 단적으로 어제(목요일)  
프로만 해도 그렇다. 어떻게 큰머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식  
구들은 수정과랑 식혜를 먹으면서 금주의 실없는 우스개 소리나 들으면서 손잡  
고 웃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금주가 다른 일을 못하면 설거지라도 해야되는

거 아닌가? ……(6006).

극중에서 은주의 역할이 정말로 대단하군요. 저 또한 간호사라서 은주의 역할이 더욱 배 배 천 배 공감이가구요……. 간호사들은 아침 근무할 때는 새벽에 출근하는데 피곤해서 일어나기도 힘든데 그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금주(언니)가 남의 사정은 전혀 생각지도 않구 자기의 사정만 내세우는 게 정말 알밋네요. ……(8984).

특히 게시판에서의 참여자들의 행위는 물리적 사회공간에서의 지배적 담론하의 경험 또는 지배적 담론 자체에 기반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사회공간에서의 유교적 가부장적 지배적 담론 또는 이 담론하의 경험을 동원하여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에 ‘현실성’을 부여하고 이를 정당화하였으며 드라마의 유교적 가부장적 요소를 비판하는 대항적 담론을 비현실적, 추상적, 이상적, 독단적이라고 공격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 극에서 남아선호사상이 제기되는데……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모두들 침에는 다들 그러죠…… 여자든 남자든 똑같은 거 아니냐구……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에선 첫아이는 딸보담 아들이 나오길 모두 바라더군요. 든든하다고 할 수 없죠 현실이니까 그것 또한 유교문화의 하나 아닐까요? 아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우선 보고 또 보고에서 금주가 딸을 낳아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주가 딱 하니 아들을 낳았다면 은주 더더욱이 얼굴을 들고 집에서 살수 없었을 겁니다……(7688).

금주가 살림을 못하는 거 이해합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막내로 자랐고, 일찍 올케들을 봐서 일을 할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남의 집 맡머느리로 있습니다. 제가 밥이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서 밥물 맞추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시부모님 어렵게 생각하면 새벽녘까지 책을 보다 자도 일어나야 할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그게 바로 정성입니다. 노력입니다. 처음부터 못할 거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 시부모님

밥 한끼 올리는 거 ‘도리’입니다. ‘효’의 일부입니다. …… 그리고 은주가 친정 식구들과 시댁식구들에게 대하는 게 너무 틀려 인격이 의심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댁 문턱이 높습니다. 정말 높습니다. 몇 십년이 지나도 ‘시’자 붙은 사람들 다 어렵습니다……(9761).

물리적 사회공간에서의 지배적 담론과 그에 기반한 경험이 게시판에서의 참여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게시판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드라마를 현실적이라고 지지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거나 또는 드라마를 행복한 내용으로 구성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들의 현실성과 행복에 대한 개념이 물리적 세계에서의 유교적 가부장적 지배적 담론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것에서도 나타났다.

금주가 결혼전 집안일 하나도 못하고 그런 거 이해해요 하지만 결혼날짜가 잡혔으면 하나하나씩 배워가야 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을 봤으면 금주가 게을러도 그 친정엄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주에게 집안일을 가르쳐야한다고 봅니다. 작가님이 무슨 의도에서 그렇게 금주를 만드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족 드라마인 만큼 좀 현실성 있는 금주를 만들어주셨음 합니다(4226).

이제껏 열심히 하고 했던 은주가 아들을 낳아야 정말 진정한 해피엔딩이 아닐까요. 금주 이제껏 오나오나 컸구 사랑만 받아 왔으니 딸 놓고 구박 좀 받아야 해요……(11105).

결국 물리적 세계에서의 지배적 담론과 이 담론하의 경험은 게시판에서 참여자들의 행위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이 게시판에서 지배적 담론으로 형성되고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 드라마의 저자성(authorship)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이 게시판에서 지배적 담론으로서 형성되고 지배력을 행사하는데 <보고 또 보고>의 묘사방식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듯 했다. 특히 드라마의 묘사방식은 게시판에서 가장 격렬하게 상호투쟁하였던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과 금주 지지/은주 비판의 남성중심적 담론들 사이의 힘의 관계의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듯 했다. 예를 들면 <보고 또 보고>는 은주와 금주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시기별로 변화를 보인다. 드라마의 전반기는 은주와 금주의 결혼 전 일상생활과 은주가 시어머니가 될지 여사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는 힘든 과정을 중심으로 드라마가 전개된다. 이 시기동안, 은주는 한편으로는 독립적, 당당한, 적극적, 이성적, 현명한, 도덕적인 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참한, 자기절제력 있는, 예의바른, 헌신적인 등으로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반면에 금주는 한편으로는 게으른, 나태한, 자기중심적인(공주병이 있는) 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착한, 순수한, 예쁜 등으로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혼재되어 묘사되어진다. 이 시기동안 게시판에서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편지가 금주 지지/은주 비판의 편지보다 더 많았지만 그 차이는 현격하지 않았다(<표1> 참조).

드라마의 중반기는 은주와 금주 각각의 사랑과 결혼의 과정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이 시기 동안, 은주와 금주는 가장 모호한 방식으로 그려졌다. 먼저 이 시기의 전반부는 은주와 금주가 각기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주요 내용을 이루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반기 동안 긍정적인 어조로 묘사되던 은주의 성격은 부정적인 어조로 묘사되는 반면에 부정적인 어조로 그려지던 금주의 성격은 긍정적인 어조로 묘사되어졌다. 예를 들면 은주의 현명하고 적극적이고 당당한 면은 인위적이고 계략적이고 사악하고 당돌한 모습으로 묘사되어진 반면에 금주의 공주병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중심적인 면은 착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강조되었다. 중반기의 전반부 동안, 금주 지지/은주 비판의 편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편지보다 양에서 앞서는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동안 많은 참여자들은 은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으로 또는 금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변했다고 밝히거나 선호 등장인물이 은주에서 금주로 변했다고 표명하였다.

…… 제가 원래 공주과 애들만 보면 은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특이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극 초반부에는 금주를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풍이와 만나면서부터 금주가 나오는 장면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 금주는 철없는 면도 있지만 참 착하고 순진한 것 같아요. 엄마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보기 좋구요. …… 침엔, 은주의 적극적인 성격과, 어떤 상황에도 잘 적응하고 대처한다는 생각에 좋게만 생각했어요. …… 지난 은주의 행동들…… 이젠 다 계획에서 나온거라 생각됩니다. 이젠 은주…… 싫어……(1642).

은주—뚝 부러지고 예의바르고 경우 있고 근데 너무 여우네요. 꿈 같은 여자 보단 여우 같은 여자가 훨씬 좋다고 많은 남자들이 말하지만 은주는 좀 지나치다 싶을 때가 꽤 있어요. 요샌 금주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입니다. 훨 순수해보여요. 금주 씨 파이팅!!!(1895).

그러나 중반기의 후반부로 가면 겹사돈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은주와 금주를 묘사하는 드라마의 분위기는 중반기의 전반부와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드라마는 결혼하기 위한 은주의 노력을 헌신적인, 성숙한, 동정적인 등의 긍정적인 어조로 그리는 반면에 결혼을 위한 금주의 행위를 한편으로는 순진하고 귀여운 등의 긍정적인 어조로 다른 한편으로는 철이 없는, 성숙하지 못한 등의 부정적인 어조로 그린다. 이 시기동안은 다시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담론을 담은 편지가 증가하면서 금주 지지/은주 비판의 남성중심적 담론을 담은 편지를 양적으로 앞서는 경향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중반기는 은주 지지/금주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과 금주 지지/은주 비판의 남성중심적 담론이 가장 팽팽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시기였다.

드라마의 후반기에는 결혼 후 함께 살게 되는 은주와 금주의 시대생활을 집중적으로 그렸는데 이 시기 동안 드라마는 명백한 선/악의 이분법으로 은주/금주를 묘사했다. 은주는 시집살이를 충실하게 하는 착하고, 헌신적이고,



예의바르고, 자기 절제력 있고, 인내심 있는 등으로 긍정적으로 그려진 반면에, 금주는 게으르고, 예의 없고, 책임감 없고, 철이 없고, 이기적인 등으로 부정적으로 묘사되어진다. 이 기간동안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을 담은 편지들이 금주 지지/은주 비판의 담론을 담은 편지들을 양적으로 완전히 압도하는 양상을 보인다(<표 1>참조). 이 기간 동안 많은 참여자들은 은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변하거나 금주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변했다고 밝히거나 선호인물이 금주에서 은주로 바뀌었다고 표명하였다.

금주와 은주가 결혼하기 전에는 은주가 고집도 세고 미운 짓을 많이 해서 은주보다는 금주가 훨씬 낫다고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완전히 반대가 되었군요. 언니인 금주는 일을 잘못한다고 해서 안하는 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짜증납니다……(8041).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주의 행동에 이제는 화가 난다. 처음엔 귀염성이 있고 여성스런 금주의 모습이 이뻐보였는데, 날이 지날수록 금주의 행동은 정말이지 짜증이 난다고까지 표현하고 싶다. 아무리 금지옥엽 귀하게 자랐지만, 어떻게 시집까지 가서 시부모에 조모까지 모시고 살면서 그럴 수가 있나 싶다. 동생이 혼자서 그렇게 애쓰는 걸 보면 언니의 본능으로써도 그렇게까지 무덤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8993).

결국 드라마가 은주와 금주를 묘사하는 방향과 참여자들이 담론이 생산되는 경향이 밀접한 상응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참여자들의 글은 드라마의 저자성이 참여자 자신들 또는 게시판에서의 담론생산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가가 농간 부리는 것 아닌가. 얼마 전 게시판에 왔을 때는 은주 밉다고 난리 난리 치는 글 들만 놀라웠다. 분명히. …… 요새는 은주가 불쌍하다 금주 내숭이 다 라는 글이 가득하다니……(3818).

보고 또 보고는 정말 대단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왜냐, 진우라는 사람의 가치관을 이리저리 뒤바꿔버린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나하면 전 처음에 보또보를 시청하면서 은주 미워, 금주 이빠였거든요, 그래서 금주 같은 사람이랑 이다음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잘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웬일! 요즘은 은주가 너무 애처롭게 보여요. 그리고 은주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260).

결론적으로 드라마의 저자성은 게시판에서의 담론생산의 경향 특히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과 금주 지지/은주 비판의 남성중심적 담론의 생산 경향에 큰 영향을 끼침으로써 결국은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이 지배적 담론으로서 형성되고 그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 (3) 팬덤적 공간으로서의 게시판

게시판 참여자들의 대다수는 무엇보다 자신들이 <보고 또 보고>의 충성스런 팬임을 밝히고 게시판을 <보고 또 보고>의 충성스런 팬들을 위한 공간으로 규정하는 경향을 매우 강하게 보였다.

이곳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이야말로 “보고 또 보고”의 왕팬들 맞죠?.....(536).

참으로, 이런 글을 올리려니 맘이 설레네요. 여기에 글을 올리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보고 또 보고’의 열렬한 애청자입니다.....(1924).

이러한 게시판에 대한 지배적 규정은 드라마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제기하는데 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면서 비판적인 글을 공격하고 게시판에서 배제하려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듯했다. 많은 참여자들은 드라마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드라마 내용, 드라마의 저자, 제작팀 등을 옹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비판적인 글을 게시판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항상 이 드라마를 보면서 시청자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작가 고유의 권한인 작가의 의도가 해쳐질까 염려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은 관망하는 듯한 자세로 절제있는 간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2740).

감독한테 반항하는 거요 뭐가 그리 어색하신가요 내가 보기엔 열심히 잘만 하더구만 그리고 은주 역할이 어색하다느니 소름돋는다느니 하지말고 그렇게 싫으면 댁이 안보면 될 거 아닐까요……(8622).

이렇게 게시판을 <보고 또 보고>의 충성스런 팬들을 위한 공간으로 규정하는 지배적 분위기는 드라마(의 유교적 가부장적 요소)에 대해 비판적인 대항적 담론의 제기를 억제하고 대항적 담론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듯 하였다. 특히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지배적 담론을 생산하는 참여자들은 드라마에 대한 소속감을 표출하면서 해석의 차이에서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대해 갖는 비판적 태도 자체를 문제삼아 대항적 담론을 공격하고 게시판으로부터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인데…… 일반적인 사회를 반영할 필요 없자나요. …… 이렇게 됐음 좋겠다는 바람을 적을 수는 있겠지만 작가의 생각이 어떠니, 기본자질 운운 등, 편견이니 선입관이 어떠냐느니 하는 말을 삼가줬음 하는 맘이 드네요(7073).

그냥 편안히 보면 안되나요? 저의 경우는 내용이 어떻게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드라마일 뿐인데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작가와 연출자 믿고 그냥 재미있게 봅시다. 모두 비판만 한다면 어디 방송국 사람들이 읽고 싶어하겠어요? …… 흥분하지 말고 편안히, 그냥 드라마 그 자체로만 보도록 해요(9171).

결국 팬덤적 공간으로서의 게시판의 성격은 유교적 가부장적인 지배적

담론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것의 생산을 촉진하면서 다른 담론들 특히 대항적 담론을 억제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은주 지지/금주 비판의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이 지배적 담론으로서 형성되고 그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5.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가상공간에서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되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보고 또 보고>의 시청자 게시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시청자 게시판은 드라마나 드라마가 내포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담론들이 제기되고 상호 경쟁하는 공간이었으나 모든 담론들이 자유롭게 제기되어 평등하게 존재하는 곳은 아니었다. 양적으로 지배적인 담론을 생산하는 게시판 참여자들은 소수적인 담론들을 공격하며 게시판에서 이들을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소수적인 담론들을 생산하는 참여자들은 지배적인 담론을 직접 공격하거나 게시판이 어떤 의견도 표현될 수 있는 공간임을 주장하며 저항하였다. 그러나 지배적인 담론을 생산하는 참여자들은 게시판에서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소수적인 담론들을 생산하는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후자들은 게시판에 참여를 꺼리는 경향을 보였다. 게시판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러한 경향들은 더욱 강해졌으며 지배적인 담론을 포함한 편지들이 게시판에서 점점 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게시판 후반부로 갈수록 게시판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의 지배력이 더욱더 확고해져갔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고 또 보고>의 게시판에서 지배적인 담론은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이었는데 이 담론이 권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주요 요인들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게시판 참여자들의 게시판에서의 행위는 물리적 사회공간에서의 개인적, 가족적, 직업적, 사회적 위치와 관계들에 따른 경험들 그리고 이 경험들을 조건짓는 물리적 사회공간에서의 지배적 담론들, 특히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것은 게시판에서 유교적 가부장적인 담론이 양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이 담론이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것으로 정당화되고 이에 도전하는 담론이 독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문제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보고 또 보고>는 강한 유교적 가부장적 텍스트였고 드라마의 저자성은 게시판 참여자들의 행위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드라마는 지속적으로 두 여주인공을 경쟁적이고 갈등적으로 묘사하면서 한 여주인공에게는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을, 다른 여주인공에게는 남성중심적 담론을 대변하게 함으로써 두 담론을 경쟁시켰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경쟁구도 속에서 드라마는 시기마다 두 인물(담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도를 달리하였다. 드라마의 초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전자에, 중반기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후자에, 중반기 후반에는 다시 상대적으로 전자에, 그리고 후반기에는 절대적으로 전자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드라마의 전개방식은 게시판 참여자들이 두 담론을 바탕으로 행위하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었으며 드라마가 가장 강력하게 재현한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을 가장 빈번히 생산하도록 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였다. 셋째, 게시판은 <보고 또 보고>에 대한 팬덤적 공간으로서의 특징이 강했다. 게시판 참여자들은 드라마의 충성스런 팬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게시판을 드라마의 충성스런 팬들을 위한 공간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다. 이러한 특징은 유교적 가부장적인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던 이 드라마를 옹호하는 글들은 환영받고 드라마에 비판적인 글들은 배척받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게시판에서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을 활성화하고 이에 도전하는 담론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두 가지 면에서 민주적 공간론보다 헤게모니 공간론이 가상공간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보고 또 보고>의 게시판은 다양한 담론이 지속적으로 경쟁하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의 담론이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 강화(하려) 하며 이를 위해 다른 담론들을 억제(하려) 하는 경향들이 강하게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터넷이 무정부적 탈중심적 건축구조로 형성되

어져 있기 때문에 가상공간이 태생적으로 반위계적이고 반점열적이라는 민주적 공간론의 주장보다 가상공간이 물리적 사회공간과 마찬가지로 권력관계가 존재하고 권력투쟁이 일어나며 위계와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헤게모니적 공간론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보고 또 보고> 게시판에서의 참여자들의 행위는 물리적 사회공간에서의 그들의 경험과 지배가치체계에 의해 심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게시판은 물리적 사회공간에서의 지배문화가 지배적 힘을 발휘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상공간을 물리적 사회공간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민주적 공간론의 주장보다 가상공간과 물리적 사회공간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는 헤게모니적 공간론의 주장을 더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헤게모니 공간론의 시각으로 가상공간을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또한 보여준다. <보고 또 보고>의 시청자게시판에서 권력이 형성되고 작동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들에는 게시판의 팬덤적 특성과 드라마의 저자성 등과 같이 가상공간(특히 드라마 게시판) 자체 또는 가상공간에서 형성되는 문화의 고유한 특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 이것들은 헤게모니적 공간론이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무엇보다 사례연구로서의 한계를 갖는다. 특히 수많은 가상공간들이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기에 본 연구결과가 갖는 다른 가상공간들에 대한 설명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본 연구는 가상공간에서의 권력형성과정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어 가상공간을 헤게모니의 공간으로만 개념화함으로써 가상공간이 표현, 친교, 공동체, 향유의 공간으로서의 갖는 특징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이는 논문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보고 또 보고>의 게시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와 권력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가상공간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경험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강진숙 (2002). 인터넷 네트워크의 정보격차 현황과 대응정책. 『한국언론학보』, 46권 4호, 5-45.
- 구자순 (1999).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성정체성과 의사소통형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4호, 5-40.
- 김관규 (2002).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을 통한 인간관계와 현실공간 인간관계의 비교. 『한국방송학보』, 16권 1호, 73-109.
- 김관규 & 임현규 (2002). CMC 대인 인상특징과 인상형성에 미치는 요인. 『한국언론학보』, 46권 4호, 76-106.
- 김명혜 & 이나영 (2000). 섹슈얼리티와 젠더의 교차지점에서 본 사이버 성 폭력. 윤선희 & 이수연(편), 『사이버 문화와 여성』, 196-229. 서울: 한나래.
- 김유경 (2001). 속의 민주주의와 가상공간내 정치토론. 『언론과 사회』, 10권 1호, 74-113.
- 김유정 & 조수선 (2000). 가상공간에서 젠더 논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윤선희 & 이수연(편), 『사이버 문화와 여성』, 122-150. 서울: 한나래.
- 김종길 & 김순주 (1998). 한국의 유즈넷 뉴스그룹 형성과 발전 가능성. 『한국사회학』, 32집, 337-365.
- 박기순 (1997). 가상공간에서 인간 커뮤니케이션. 『한국커뮤니케이션학』, 5집, 380-417.
- 백육인 (1996). 신세대문화와 사이버스페이스. 『현대사회』, 43호, 60-70.
- 성시정 (1999). 사이버스페이스와 성차 이태올로기. 『신라대학교 여성연구논집』, 10집, 101-116.
- 윤영철 (1998). 대안적 매체로서의 PC통신; ‘한총련’에 관한 토론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3권 1호, 184-218.
- 이만제 (1998). PC통신내 동호회 문화분석. 『한국사회와 언론』, 9호, 165-196.
- 한혜경 & 박혜진 (2000). 성별에 따른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패턴. 윤선희 & 이수연(편), 『사이버 문화와 여성』, 153-195. 서울: 한나래.
- 한희정 (2002). 인터넷 게시판 수용자의 드라마 해독연구: 멜로드라마 <피

- 아노>의 사례분석. 『한국방송학보』, 16권 2호, 368-398.
- 주창윤 (2002). 인터넷 수용자의 참여방식과 문화적 생산: <여인천하>계 시판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19호, 265-294.
- Baym, N. (1995). The emergence of community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n S. Jones(Ed.), *Cybersociety: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nd community*(pp. 138-163). Thousand Oaks, CA: Sage.
- Berman, J. & Weitzner, D. (1997) Technology and democracy. *Social Research*, 64(3), 1313-1319.
- Bielby, D. & Harrington, L. (1994). Reach out and touch someone: Viewers, agency, and audiences in the television experience. In J. Cruz & J. Lewis(Eds.), *Viewing, Reading, Listening: Audiences and Cultural Reception*(pp.81-100).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 Glensne, C. & Peshkin, A. (1992).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White Plain, NY: Longman.
- Griscom, A. (?). Trends of Anarchy and Hierarchy: Comparing the Cultural Repercussions of Print and Digital Media. [On-line]. Available: <http://landow.stg.brown.edu/pace/infotech/asg/ag1.htm>
- Gurak, L. (1995). Cybercasting about cyberspace. *CMC Magazine* [On-line], 2(1). Available: <http://december.com/cmc/mag/1996/feb/gurak.html>
- Denzin, N. (1999). Cybertalk and the method of instances. In S. Jones(Ed.), *Doing internet research: Critical issues and methods for examining the net*(pp.107-126). Thousand Oaks, CA: Sage.
- Dubrovsky, V., Kiesler, S., & Sethna, B. (1991). The equalization phenomenon: Status effects in computer-mediated and face-to-face decision making groups. *Human Computer Interaction*, 6, 119-146.
- Fernback, J. (1999). There is a there there: Notes toward a definition of cybercommunity. In S. Jones(Ed.), *Doing internet research: Critical issues and methods for examining the net*(pp.203-220). Thousand Oaks, CA: Sage.



- Hakken, D. (1999). *Cyborgs@cybersapce: An ethnographer look to the future*. London: Routledge.
- Heim, M. (1993). *The metaphysics of virtual re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erring, S. (1994). Gender Difference in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Bringing Familiar Baggage to the New Frontier. Available: <http://www.cpsr.org/cpsr/gender/herring.html>
- Hiltz, R. & Turoff, M. (1993). *The network nation*. Cambridge: MIT Press.
- Jones, S. (1999b). Studying the net: Intricacies and issues. In S. Jones(Ed.), *Doing internet research: Critical issues and methods for examining the net*(1-28). Thousand Oaks, CA: Sage.
- Kendall, L. (1999). Recontextualizing cyberspac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for on-line research. In S. Jones(Ed.), *Doing internet research: Critical issues and methods for examining the net*(57-74). Thousand Oaks, CA: Sage.
- Kiesler, S., Siegel, J. & McGuire, T. (1984).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1123-1134.
- Loader, B. (1997). The governance of cyberspace: Politics, technology and global restructuring. In B. Loader(Ed.), *The governance of cyberspace: politics, technology and global restructuring*(1-22). New York: Routledge.
- Luke, T. (1998). The politics of digital inequality: Access, capability and distribution in cyberspace. In C. Toulouse & T. Luke(Eds.), *The politics of cyberspace*(120-143). New York: Routledge
- Marshall, C. & Rossman, G. (199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Sage.
- McLaughlin, M., Osborne, M., & Smith, C. (1995). Standards of conduct on Usenet. In S. Jones(Ed.), *CyberSociety: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nd community*(90-111). Thousand Oaks, CA: Sage.
- Matheson, K. (1992). Women and computer technology. In M. Lea(Ed.), *Contex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66-88). New York: Harvester-Wheatsheaf.

- O'Brien, J. (1999). Writing in the body: Gender(re)production in online interaction. In P. Kollok & M. Smith(Eds.), *Communities in cyberspace*(76-104). New York: Routledge.
- Paccagnella, L. (1997). Getting the seats of your pants dirty: Strategies for ethnographic research on virtual communiti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On-line], 3(1). Available: <http://www.ascusc.org/jcmc/vol3/issue1/paccagnella.html>
- Reid, E. (1999). Hierarchy and power: Social control in cyberspace. In P. Kollok & M. Smith(Eds.), *Communities in cyberspace*(107-133). New York: Routledge.
- Resnick, D. (1998). Politics on the internet: The normalization of cyberspace. In C. Toulouse & T. Luke(Eds.), *The politics of cyberspace*(48-68). New York: Routledge
- Rice, R. (1984). Mediated Group Communication. In R. Rice(ed.), *The New Media*. Beverly Hills: Sage.
- Sproull, L., & Kiesler, S. (1986). Reducing social context cues: Electronic mail i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Management Science*, 32(11), 1492-1512.
- Toulouse, C. (1998). Introduction to the politics of cyberspace. In C. Toulouse & T. Luke(Eds.), *The politics of cyberspace*(1-17). New York: Routledge.
- Turkle, S. (1995). *Life on the screen: Ident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 New York: Touchstone.
- Willson, M. (1997). Community in the abstract: A political and ethical dilemma? In D. Homles(Ed.), *Virtual politics: Identity and community in cyberspace*(145-162). Thousand Oaks, CA: Sage
- Wolf, A. (1998). Exposing the great equalizer: Demythologizing internet equity. In B. Ebo(Ed.), *Cyberghetto or cybertopia?: Race, class, and gender on the internet*(15-32). Westport, CT: Praeger.

(최초 투고 2003.2003.8.20., 최종원고 제출 2003.10.14.)

## An Case-Study on the Constructing Process of Power in Cyberspace

Oh-Hyeon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Studies,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way that power in cyberspace is constructed and work and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forming the power by analyzing a bulletin board system(BBS) on an everyday drama, "Can't Take My Eye Off You"(MBC).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The participants in the BBS produce various discourses and constantly compete with each other. In the process, the participants who produce a dominant discourse in quantity tend to exclude other discourses from the BBS and the participants who produce the minority discourses sometimes resist the dominant discourse but tend to refrain from expressing the minority discourses. These tendencies have intensified, and eventually the dominant discourse overwhelmingly powers over the BBS at the end of it. The dominant discourse in the BBS is confucian patriarchal one and this is primarily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BBS as the fandom of the drama, the participants' experience and dominant culture in their embodied social world, and the authorship of the drama.

Keywords: cyberspace, bulletin board system(BBS), internet audience, power, television drama